



# 관타 서비스 (PWR.US)

북미 최대 전력·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전문 기업

-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수혜주로, FY26 관련 매출 60~80% 성장 전망
- 440억 달러의 사상 최대 수주 잔고, 숙련된 노동력에 기반한 프로젝트 실행력 보유
- 변압기 직접 제조 등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통해 자재 리스크를 해소

## 북미 에너지·전력망 현대화 수혜주

관타 서비스(PWR)는 북미 전력 및 유틸리티 인프라 시장 점유율 1 위 기업으로 송전 및 배전망, 변전소, 재생 에너지 발전소부터 통신 인프라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인프라의 설계, 설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약 69,500 명에 달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숙련된 현장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직접 수행' 모델은 고객에게 프로젝트 수행의 확실성과 속도를 보장하는 독보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 Q4FY25 실적: 기록적인 수주잔고와 수익성

분기 매출액은 78.4 억 달러(+19.7% YoY), 조정 EPS 는 3.16 달러 (+7.5% YoY)로 시장 컨센서스(74.0 억 달러, 3.05 달러)를 상회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력 인프라 부문의 강력한 유기적 성장이 견인했으며, 특히 대규모 부하 중심 시설(Large load center)과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가 큰 기여를 했다. 미래 성장 가시성을 보여주는 총 수주잔고는 440 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향후 12개월 내 매출로 인식될 예정인 단기 수주잔고 역시 259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2026년 실적 성장에 대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 밸류에이션: 성장 가시성에 기반한 프리미엄

PWR의 12M Fwd PER은 42 배로 산업재 섹터 중앙값(22 배)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구간이나, 이는 단순한 고평가라기보다 북미 전력망 현대화 및 AI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이클 내에서 PWR이 보유한 시장 지위와 실적 신뢰도에 대한 성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PWR의 FY26, FY27, FY28 조정 EPS 성장률은 각각 21%, 16%,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멀티플 부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분기에만 약 17.3 억 달러 규모의 공격적인 M&A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부채/EBITDA 비율 1.95 배를 기록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밸류에이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2.23): \$549.11  
 목표주가 컨센서스: \$580.63

## ▶ 투자 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매도
67%	30%	3%

##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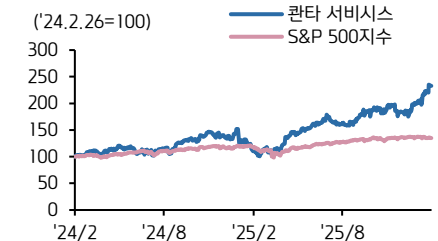
산업분류	건설 & 엔지니어링
S&P 500 (02/23)	6837.75
현재주가/목표주가	549.11 / 580.63
52주 최고/최저 (\$)	565.9 / 227.1
시가총액 (백만\$)	82,158
유통주식 수 (백만)	150
일평균거래량 (3M)	1,026,379

##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23,673	28,480	32,996	37,100
EBITDA	2,331	2,876	3,362	3,807
EBITDA 마진(%)	9.8	10.1	10.2	10.3
순이익	1,346	1,626	1,977	2,302
EPS	8.97	10.75	12.96	15.12
증가율(%)	25.3	19.8	20.5	16.7
PER(배)	47.6	54.5	42.7	36.5
PBR(배)	6.4	7.1	8.3	7.4
ROE(%)	13.3	12.7	15.2	16.3
배당수익률(%)	0.1	0.1	0.1	0.1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30.9	17.9	45.5	105.2
S&P Index	0.9	-0.1	6.8	14.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2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투자 포인트: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현대화로 인한 업사이드 보유**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성장)** 동사는 단순 전력망 시공사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 비중은 약 10% 수준이나, 관련 수주잔고는 전 사업 부문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2026년 데이터센터향 매출이 포함된 Technology & Load Centers 부문 실적이 60~80% 증가할 것이라는 압도적인 가이드언스를 제시한 바 있다.

동사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발전 시설부터 BESS, 송전선, 변전소, 지하 인프라까지 모두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 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NiSource와의 3GW 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 프로젝트는 이러한 통합 EPC 역량을 입증한다. 전력계통 병목 현상 속에서 동사의 독보적인 시공 확실성은 속도를 중시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에 부합하여 장기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통한 해자 강화)** 동사는 자재 수급난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수년간 전력 변압기 제조 및 수직적 공급망 구축에 총 5~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26년 가이드언스에도 제조 시설 확충을 위한 2.5~3.5억 달러의 전략적 자본 지출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345~765kV 초고압 송전용 변압기와 차단기 생산 능력 확보에 집중될 예정이다.

업계 전반에서 변압기 리드타임이 기록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만큼, 핵심 자재를 직접 설계·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동사에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강력한 해자이다. 이는 프로젝트의 실행 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고객들의 비용 효율성 목표를 지원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망 현대화 및 대규모 송전 프로젝트 본격화)** 동사는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가 주도하는 북미 인프라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이다. 동사의 전력 인프라 부문의 수주잔고는 현재 36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장기 실적의 업사이드 요인인 765kV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가 2027년 후반부터 대규모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동사는 기존의 1~2년 단위 단기 입찰 방식을 벗어나 유틸리티 고객과의 5~10년 장기 파트너십 구축 및 프로그램 중심 지출(Programmatic Spend)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시 동사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규제 유틸리티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의 질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타 서비스 FY25 4Q ('25.09.01~12.31)

구분	FY25 4Q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백만 USD)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4 4Q	성장률	FY25 3Q
매출액	7,842	7,404	5.9%	6,553	19.7%	7,631	2.8%
EBITDA	845	791	6.9%	738	14.6%	858	-1.5%
EBITDA 마진(%)	10.8%	10.7%	0.1%p	11.3%	-0.5%p	11.2%	-0.5%p
순이익	480	459	4.6%	442	8.5%	504	-4.9%
EPS (USD)	3.16	3.05	3.5%	2.94	7.5%	3.33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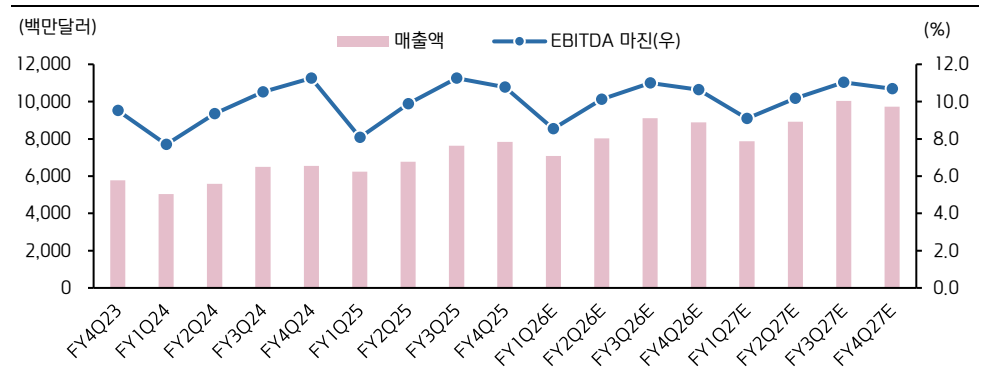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2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관타 서비스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USD)	FY26Q1	YoY 성장률	FY26Q2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매출액	7,087	13.7%	8,020	18.4%	32,996	15.9%	37,100	12.4%
EBITDA	605	20.1%	812	21.5%	3,362	16.9%	3,807	13.2%
EBITDA 마진(%)	8.5%	0.5%p	10.1%	0.3%p	10.2%	0.1%p	10.3%	0.1%p
순이익	321	19.5%	470	25.9%	1,977	21.6%	2,302	16.4%
EPS (USD)	2.17	21.9%	3.07	23.8%	12.96	20.5%	15.12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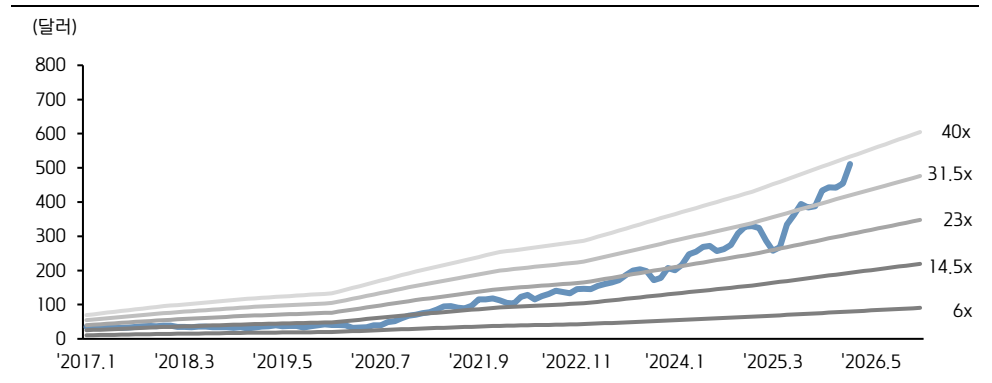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2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관타 서비스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2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관타 서비스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2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판타 서비스 상세실적표

(백만 달러)	FY4Q24	FY3Q25	FY4Q25	YoY(%)	QoQ(%)
<b>[GAAP]</b>					
매출액	6,553	7,631	7,842	19.7	2.8
매출원가	5,490	6,415	6,625	20.7	3.3
매출총이익	1,063	1,216	1,217	14.5	0.0
비연결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16	14	15		
판매관리비	-506	-573	-594		
무형자산상각비	-116	-133	-143		
조건부 대가 부채 공정가치 증가분	-4	-7	-10		
영업이익	453	517	485	7.1	-6.2
이자 및 기타 자금조달비용	-56	-72	-76		
이자이익	14	4	4		
기타순이익	6	13	6		
세전이익	416	462	420		
법인세비용	106	120	103		
순이익	310	343	317	2.0	-7.7
비지배지분이익	5	3	1		
보통주 귀속 순이익	305	339	315	3.4	-7.1
회석 EPS(달러/주)	2.03	2.24	2.08	2.5	-7.1
회석 가중평균주수(백만주)	151	151	152	0.7	0.2
<b>주요 영업데이터 [Non-GAAP]</b>					
조정 EBITDA	738	858	845	14.6	-1.5
보통주 귀속 조정 순이익	442	504	480	8.5	-4.9
회석 EPS(달러/주)	2.94	3.33	3.16	7.5	-5.1
잉여현금흐름(FCF)	575	438	946	64.5	116.0
<b>[부문별 실적]</b>					
매출액	6,553	7,631	7,842	19.7	2.8
Electric	5,380	6,172	6,427	19.4	4.1
Underground& Infrastructure	1,173	1,459	1,415	20.6	-3.0
영업이익	453	517	485	7.1	-6.2
Electric	653	704	696	6.5	-1.2
Underground& Infrastructure	43	122	108	154.7	-11.2
Corporate&Non-Allocated	-243	-309	-319	31.3	3.4
RPO (12 Months)	11,251	13,450	15,707	39.6	16.8
Electric	10,297	12,125	14,189	37.8	17.0
Underground& Infrastructure	954	1,325	1,518	59.1	14.6
Backlog(12 Months)	19,772	22,310	25,866	30.8	15.9
Electric	16,496	18,847	21,944	33.0	16.4
Underground& Infrastructure	3,276	3,463	3,922	19.7	13.3

자료: 판타 서비스, 키움증권 리서치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